

『한국건강형평연구』의 새로운 출발

『한국건강형평연구』 창간호는 국내 건강형평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의 부재와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 일자리를 잃었고, 돌봄의 부담을 더 지게 되었으며, 사회적 관계들이 끊어지면서 고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제때 치료받을 수 없었으며, 외로웠고, 생계와 돌봄의 부담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 즈음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 불안정성과 경제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던 신사회적 위험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 발생한 여러 국제적 사건들로 인해 더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모두의 삶을 무방비 상태로 뒤흔들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깊어졌고, 국가의 역할과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난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양적 경제 성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악화 상황을 간과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겪은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건강불평등의 이슈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보건사회정책은 과거 보수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일부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잔여주의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학회지는 재생산 노동(돌봄 무급 노동), 분배 격차, 시민사회 참여,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비시장적 가치,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과 환경 보존에 대한 고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학계, 보건의료 현장, 노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창간호에는 이러한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편집위원회의 고민을 담아 두 가지 기획 특집을 마련했다. 첫 번째 기획 특집은 ‘건강형평성 연구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관점 논문, 비판적 종설, 인터뷰로 구성하였다. 김명희는 국내 건강불평등 연구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건강불평등 지식 전환의 단절을 극복하고 건강형평성 학문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로 명쾌하게 제시했다. 박진욱과 정최경희는 비판적 종설 논문을 통해 국내 건강불평등 관련 정책 연구를 정책 의제 설정연구, 정책 분석, 정책 및 중재사업 평가, 정책 제안 연구로 나누어 분석했다.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건강불평등 현황 및 경로 연구와 정책 연

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고,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으로서 타 분야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 보건정책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창간호를 한참 준비하던 2022년 11월, 김명희 전 학회장을 통해 대안적 환경·직업 건강정책 학술지인 『뉴 솔루션스』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크레이그 슬래틴 메사추세츠 주립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특별 대담에서 슬래틴 교수는 30년 이상 학계, 노동현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 온 뉴 솔루션스의 경험담을 편집위원회와 나누며 『한국건강형평연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두 번째 기획 특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 논문과 관점 논문으로 구성했다. 두 편의 기획 논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생하게 드러난 공공보건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찾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응급의료의 현황을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김영수 등은 응급의료 취약지인 경상남도 함안군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했다. 박주영 등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속의공론화 사업이었던 <포스트 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도민원탁회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주민참여의 가능성과 함의점을 도출했다. 변혜진은 기후 위기가 건강불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논하면서, 건강 정의의 실현, 공거(公居)의 윤리를 통한 혼종 공동체의 가능성에 관한 글을 보내주었다.

이어지는 일반 논문에서 박유경과 김창엽은 이용자 관점에서 개발한 의료이용 지표와 기존의 미충족의료 지표를 비교하여 새 지표가 불평등한 의료이용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경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김새롬은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회가 진행했던 공부소모임에서 함께 읽은 패트리샤 힐 콜린스와 시르마 빌게의 『상호교차성』을 리뷰했다. 사회정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형평성 지식 전환의 이론적 토대로 상호교차성을 소개하고 상호교차적 실천을 지향하는 다양한 관점과 실재를 논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숙원 과제였던 학술지가 창간되었다. 『한국건강형평연구』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담긴 원고를 환영한다.

2023년 2월
편집위원장 허현희